

추모시에 나타난 애도의 시적 전략*

문 신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이천 년대 문학사건 | 4. 애도의 공적 윤리: 이천 년대의
추모시 |
| 2. 애도: 추모의 윤리적 담론 | 5. 나오며 |
| 3. 애도의 사적 윤리: 이천년 이전
추모시 | |

국문초록

이 글은 추모시에 나타난 애도의 방법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이천 년을 전후한 정치사회적 죽음 사건을 대하는 문학적 애도의 양상을 살폈다. 이 글에서 추모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천 년대 이전의 4·19 혁명과 5·18민주화 운동으로 발생한 죽음 사건, 그리고 이천 년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죽음 사건이다.

이천 년 이전 추모시는 사적 애도를 통해 죽음 사건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모시는 추모 대상의 죽음 사건을 전면에서 부각시키고, 그 죽음 사건의 부당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양상으로 애도를 드러낸다. 이는 이들 죽음 사건이 폭력적 정치에 의한 직접적 희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추모시는 애도의 방식을 통해 부당한 정치 세력과의 대결 의식을 강화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8월 24일 전남대에서 열렸던 국어문학회 제62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임.

이천 년대 추모시는 공적인 애도 속에서 추모자가 추모 대상에 존재론적으로 이입하는 정서의 융합 상태를 보여준다. 이들 죽음 사건은 부당한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 동의와 묵인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모자들의 공감적 애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면에는 추모자들 역시 잠재적 희생자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이런 까닭에 이천 년대 추모시의 애도에는 정치 사회 지형의 바람직한 변화를 갈망하는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주제어: 추모시, 애도, 희생, 죽음-사건, 애도의 윤리

1. 이천 년대 문학사건

이천 년대 들어 우리 문학은 독특한 죽음-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고, 또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침몰에 따른 죽음이다. 중요한 것은 두 죽음-사건이 개인의 일상적인 죽음으로 축소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두 죽음-사건 모두 일차적으로는 정치적 죽음-사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사회역사적 죽음-사건으로까지 그 의의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죽음-사건의 주체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과 결부되면서 정치적 지지자들에게 죽음-사건은 정치적 행위로 제시되었고, 후자의 죽음-사건은 연루된 인원의 규모와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자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남달랐다.¹⁾

1) 두 죽음-사건을 지켜보는 대다수의 추모자들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중되면서 사회적으로 그 추모 열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부채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가 이루고자 했던 정치적 이상을 그리

두 죽음-사건은 우리 문학이 사회역사적 담론으로 눈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²⁾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419와 518을 통해 그러한 문학 담론에 대한 문학사적 경험을 선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경험은 일반적으로 죽음-사건에 대한 추모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학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죽음-사건으로 폭로되는 “그날의 증언-저항투쟁-울분-비분-정의감을 필두로 격려·성원·추모의 내용을 담은 시인들의 목소리아말로 역사의 진실 바로 그것임을 확신”³⁾해왔다.

419가 일어나자 거의 모든 시인들이 419혁명을 기리는 시들을 썼고, 각 시문 잡지는 다투어 이 시들을 실었다. [……] 이 시들은 한마디로 찬가(讚歌)들이다. 엄격히 따질 때 찬가는 비록 한 개인에 의하여 쓰여지지만 그 사람의 시는 아니다. 한 개인에 의하여 쓰여지되 그 사람의 개성과 취향이 극단적으로 억제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감정과 의지를 종합할 수 있는 데 바로 찬가의 특성이 있는 까닭이다.⁴⁾

찬가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라는 점에서 대상이 남겨준

고 세월호 사건의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을 기성사회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심리적 부채는 추모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데 일조했고, 국민적 관심과 공동체적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두 죽음-사건은 2000년대의 중요한 사회역사적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2) 1990년대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이러한 관점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활발한 문학적 담론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문예지에서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무엇을 바꿀까”(『창작과비평』 2014년 가을호), “세월호 이후, 다시 생각하는 한국문학”(『창작과 비평』 2015년 여름호), “4·16, 세월호를 생각하다”(『문학동네』 2014년 가을호), “세월호 이후 작가의 말”(『실천문학』 2014년 가을호) “세월호 2주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실천문학』 2016년 봄호) 등의 주제로 문학의 사회적 의무를 다루었다. 계간 『문학과 사회』도 2014년 겨울호에서 “2014 한국 문학의 좌표와 향방”을 점검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애도의 윤리 등을 제기함으로써 문학과 사회의 상호 연관에 주목했다.
- 3) 문병란·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11쪽.
- 4) 신경림, 『우리 시에 비친 4월혁명』, 신경림 편, 『4월혁명기념시전집』, 학민사, 1983, 369~370쪽.

사상, 행동, 업적 등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의 추모시와 다르지 않다. 죽음-사건에서 추모자들은 죽음을 삶의 종결로 생각한다. 죽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삶이 끝났다는 인식이 발생함으로써 추모자들은 추모 대상의 '삶'의 방식과 그 의미를 추적해간다. 그 결과 존재론적 실체인 사람은 사라지더라도 그의 삶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로서의 추모가 발생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그들의 죽음-사건이 정치사회적 이념과 연계될 경우, 그것이 추모자들의 삶과 긴밀히 연계된다는 점에서 추모의 의지는 죽음-사건 자체와 더불어 추모자의 삶-사건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띤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이천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죽음-사건을 대하는 문학적 대응 양상으로 추모시를 검토하고, 그 시에 나타난 애도의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은 사적 추모보다는 공적 차원에서 발생한 죽음-사건과 그것의 공적 담론의 실천으로 한정한다. 이는 공동체의 윤리와 관련된다. 어떤 죽음-사건을 개인적 차원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역사적 죽음-사건으로 인식한 후 그 죽음의 공공성, 역사성 등에 근거한 애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대상은 사회역사적 공감과 공동체적 윤리를 이끌어냈던 정치적 죽음-사건 혹은 사회적 죽음-사건에 관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 대상은 죽음-사건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⁵⁾

5) 죽음-사건에 대한 추모시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죽음-사건 자체에 집중하면서 추모의 의미를 해당 사건과 그 희생자로 국한하는 경우이다. 4·19나 5·18을 추모하는 시편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추모를 외적 위력에 의해 억압받거나 추모자 스스로 위축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의 경우 추모는 죽음-사건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발생하게 된 사회역사적 조건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띤다. 이천 년대 이후의 추모시에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본고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이와 같은 추모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 텍스트이다. 물론 이러한 기준이 해당 죽음-사건을 추모하는 시를 전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지만, 해당 죽음-사건을 대하는 시적 추모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각 죽음-사건에 대한 추모시의 유형이나 애도의 방법에 관해서는 따로 해당 추모시를 대상으로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2. 애도: 추모의 윤리적 담론

추모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한 존재론적 행위이다. 이는 추모가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준다. 추모는 ‘삶’의 형식을 지향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종결된 삶을 가상/환상의 범주에서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추모의 대상은 부재하지만 추모 행위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삶의 부정 인식으로 ‘-삶’으로 상징된다. 삶:-삶=-죽음:죽음의 형식 속에서 추모자의 추모행위는 ‘삶’ 그리고 ‘-죽음’을 향한다. 즉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가려 있는 삶을 찾아내려는 역동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이 추모인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추모자는 ‘삶’보다는 ‘-죽음’을 해명하고 ‘-죽음’에서 ‘-’적인 요소를 해소, 해원하고자 한다. 보편적인 의미에서 추모 행위는 ‘-죽음’에서 ‘-’를 무화시켜 최종적으로 ‘죽음’을 인정하고 대상자의 ‘삶’을 ‘-삶’으로 이관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나 추모가 단순히 대상자의 삶에 관한 것만은 아니다. 추모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애도의 경우, 추모자(죽음에 들지 않고 살아남은 자)의 자기 치유 행위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추모자가 상실된 대상에 대한 애도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실재(real)의 무게에 짓눌려 삶의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⁶⁾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처럼 사회역사적 상실을 증폭시키는 애도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애도는 개인 치유와 마찬가지로 사회공동체의 상실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애도란 “상실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6) 이경재, 『문학과 애도』, 소명출판, 2016, 18쪽. 라캉에 따르면 ‘실재’는 상징계의 지배에 처하기 이전의, 즉 의미와 상징으로 기호화된 세상의 방식들을 배우기 이전의 신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캉의 실재는 “지대들도, 하위구분들도, 국부화된 높낮이도, 혹은 틈새와 충만도 없”는 “일종의 매끄럽고 이음새 없는 표면 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실재를 폐기하게 되면 ‘현실’이라는 상징적 질서가 창조된다.(브루스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제: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10, 62쪽.)

것을 감당할 만한 현실로 바꾸는 작업”⁷⁾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애도의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상실을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애도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다. ‘-죽음’에서 ‘-’를 제거하고 그것을 ‘삶’의 앞자리에 배치하여 중국에는 ‘-삶’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 ‘-’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애도인 것이다.⁸⁾ 여기서 핵심 대상이 되는 ‘-’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상실이 죽음이 되고 그 역도 발생하는 것이다. 애도는 이러한 상실을 맥락으로 발생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죽음-사건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사건 이전에 그 대상을 지향하였던 모든 리미도를 중단·철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상실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⁹⁾ 프로이트는 이 과정에서 예술 창작의 충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추모시의 창작 의도와 그것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상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아이면서, 그것을 창작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자아, 승화시키고자 하는 자아이다. 거꾸로 말하면, 상실의 체험은 시인의 일상적 자아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시인으로서의 자기정립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자기결단을 통해서, 주관적 의식의 과잉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의 거처를 찾아서 표류하는 낭만주의 시인은 자기정립을 향한 여정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그 이정표들은 시인이 앓고 있는 상실의 징후이면서 동시에 그가 그 상실을 치유하는 방식이고 그 치유의 흔적이다. 시인이 시인으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실의 반복

7) 김석, 「야만의 시대 애도의 필요성」, 『시작』, 2014년 가을호, 44쪽.

8) 이런 점에서 애도는 슬픔과 다르다. 슬픔이 죽음-사건 자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면서 즉흥성과 일회성을 띠는다면, 애도는 죽음-사건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사건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그리하여 애도는 최종적으로 죽음-사건에서 촉발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고, 죽음-사건의 슬픔을 해소함으로써 상실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는 과정이 된다.

9)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250쪽. 우리말 번역본에서는 Trauer를 ‘슬픔’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태보다는 기간과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도’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슬픔, 비애, 애도 등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적인 치유 과정을 통해서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실의 체험은 시인의 자기정립의 근원적인 조건이며, 시인의 자기창조의 가능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실이 시인의 자기정립 조건이라고 해서, 그 자기정립의 방식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인의 개성과 그가 처한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마치 상실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태도로서 애도와 우울증이 나타나 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상실에 대응하는 시인의 자기정립의 두 유형을 ‘애도적 유형’과 ‘우울증적 유형’으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¹⁰⁾

기본적으로 시인의 시 쓰기는 상실 이후 발생하는 자기정립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시는 추모시의 일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¹¹⁾ 추모의 과정이 흔히 슬픔, 분노, 기억, 사랑, 애도, 다짐 같은 다양한 감정과 의지를 무의식적으로 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그러나 특별히 사회역사적 파급력을 지닌 죽음-사건에 따른 추모시는 ‘애도’와 긴밀하게 접촉된다. 알다시피 애도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理想)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¹²⁾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도가 구체적인 대상, 즉 실체로서의 인물을 향하기도 하지만, 그 인물을 통해 환기되는 절대적 이념(조국, 자유, 이상 등)을 겨냥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정치사회적 죽음-사건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다음에서 보게 될 4·19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침묵한 통곡이며/안심의 자세로 돌아선 자유가/가버린 세대의 목가(牧歌)에

10)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 그린비, 2012, 34~35쪽.

11) 거의 모든 시들이 시인의 욕망과 그것의 결핍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이별을 노래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에 관한 시들이 그렇다. 그러한 시들은 현실의 ‘-’ 요소를 욕망과 환상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추모를 단순히 ‘죽음-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 요소와 연관 짓는다면, 모든 시는 추모시라고 할 수 있다.

12) 지그문트 프로이드, 앞의 책, 248쪽.

조표를 단다.//오욕의 과거가/날고 헐어버린 시간의 연쇄가/녹음 아래서 진리만을 탐구할 아쉬운 내 친우를 앓아갔다//부동할 수 없는 행각/바라던 진리의 자유도 있는데/영광이란 이름 아래 가버린 정의용사/문(門)이여.//호성만리(呼聲萬里) 이국은 그리도 먼지/선혈 뿜은 가슴이라도 보여주소./원한은 별이 된다는 데/슬픔은 비가 된다는데//방황하는 혼에/여기, 나, 경건히 명복을 비오.

—이승남, 「조장: 앓겨간 친우 門에게」 전문¹³⁾

나)

푸른 하늘을 制壓하는/노고지리가 자유로왔다고/부러워하던/어느 詩人의 말은 修正되어야 한다//自由를 위하여/飛翔하여본 일이 있는/사람이면 알지/노고지리가/무엇을 보고/노래하는가를/어찌서 自由에는/피의 냄새가 섞여있는가를/革命은/왜 고독한 것인가를//革命은/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김수영, 「푸른 하늘을」 전문¹⁴⁾

가)시는 4·19에 희생당한 친구를 추모하는 대학생의 시이고 나)시는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다. 기본적으로 두 시 모두 추모 대상의 삶을 구체화하지 않고, 죽음-사건이 환기시킨 사회역사적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가)시의 경우 ‘정의’가, 나)시의 경우 ‘자유’가 핵심으로 자리한다. 가)시의 경우 친한 친구의 죽음-사건이 ‘친구’라는 개별적 존재를 넘어 친구가 지향하고자 했던 이념의 지평을 노래하고 있다. 이때 추모자는 추모 대상인 ‘친구’의 지향적 대상에 공감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향점으로 전이하게 된다. 물론 추모 대상과 추모자의 ‘정의’에 대한 이념적 공감대가 죽음-사건 이전부터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추모자에게 ‘정의’의 인식은 죽음을-사건을 통해 본격화되고 또 하나의 실체적 관념으로 수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시가 ‘죽음’에 초점이 맞춰진 추모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면, 나)시는 그 죽음 자체를 사건화하고 있다. 4·19라는 사회역사적 사건으로부터 가)시와 나)시 모두 죽음-사건을 환기하고 있지만, 나)시는 가)시와 달리 개별적 ‘죽음’을 넘어 그 죽음의 보편적 ‘사건’을 부각시킨다. 이렇게 죽음보다는 사

13) 신경림 편, 앞의 책, 273쪽. 이 시의 작자는 4·19 당시 희생된 벗 ‘門’을 기리고 있으며, 당시 고려대 국문과 1학년이었다.

14) 김수영, 『김수영전집: 시』, 민음사, 1984, 147쪽.

건을 중심에 두는 인식은 ‘죽음-사건’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가)시가 ‘죽음’에 인식론적 방점이 찍힌 것은 그 친구의 죽음-사건으로부터 추모자의 심정적·인식적 거리가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죽음-사건을 추모하는 과정은 먼저 ‘죽음’의 사적 의미와 그것을 발생시킨 사회역사적 역학관계 초점을 두는 시적 시도가 있고, 그리고 ‘죽음’과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한 후 그것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확대하여 사회역사적 전망 획득을 시도하는 시적 지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는 죽음-사건을 대하는 추모자의 심정적·인식적 거리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거리가 긴밀할수록 가)시에서 “호성만리(呼聲萬里) 이국은 그리도 먼지/선혈 뿜은 가슴이라도 보여주소.”처럼 ‘죽음’에 매몰되어 감상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나)시에서 ‘죽음’은 객관적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특히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부러워하던/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인식론적 전환, 즉 기존에 형성된 죽음-사건의 의미를 반성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이 시는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거리 감각은 추모의 사적 애도를 넘어 사회역사적 공동체의 애도 윤리를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3. 애도의 사적 윤리: 이천년 이전 추모시

추모는 죽음-사건의 발생과 시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 추모가능성을 들 수 있다. 추모가능성은 죽음-사건을 공론화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한다. 특히 사회역사적으로 공동체의 윤리와 긴밀할 수밖에 없는 추모시에서 추모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가 추모시의 애도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4·19와 5·18 등 지난 세기에 발생했던 사회역사적 죽음-사건은 추

모가능성이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죽음-사건에 대한 추모는 사건 발생과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죽음-사건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예된 후 그 파장이 정제되는 진공상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건 당시의 충격과 정서적 감응의 고조된 상태에서부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후에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는 추모시가 죽음-사건과 시간적으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객관화된 추모의 시도는 애도를 사적인 차원에서 병리적 감상으로 해결해버리기도 한다.

1) 4·19 추모시의 경우

4월의 피바람도 지나간
수난의 도심은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갈라진 가슴팍엔
살고 싶은 무기도 빼앗겨 버렸구나.

아아 저녁이 되면
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술집이 가득 넘치는 도심.

약보다도
이 고달픈 이야기들을 들으라
멍들어 가는 얼굴들을 보라.

어린 4월의 피바람에
모두들 위대한
훈장을 달고
혁명을 모독하는구나.

이젠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가야할 곳은
여기도,
저기도, 병실.

모든 자살의 집단. 멍든
기를 올려라
나의 병든 데모는 이렇게도
슬프구나.

—박봉우,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전문¹⁵⁾

1961년 3월 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이 시는 4·19의 죽음-사건으로부터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되었다. 그래서인지 이 시는 “4월의 피바람도 지나간/수난의 도심”이라는 도입부를 통해 죽음-사건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도심”은 “아무렇지도 않는/표정을 짓고 있”다. 죽음-사건을 겪은 도심의 무표정은 곧 그 사건을 대하는 추모자의 표정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은 죽음의 당사자인 추모 대상을 죽음-사건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것은 추모가능성의 축소나 위축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4·19 이후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5·16 쿠데타에 이은 군사정권의 수립으로 귀결되면서 죽음-사건을 통해 획득하고자 했던 ‘자유’, ‘정의’ 등의 이념이 상실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윤리적 지향점이 상실됨으로써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는 역사적 전망의 상실감이 더 컸던 것이다. 따라서 추모시가 죽음-사건의 당사자를 애도하기보다는 애도하는 주체의 병적 징후와 상실감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 추모자들 또한 “멍들어 가는 얼굴들”로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가야할 곳은” “병실” 뿐이고, 살아가야 할 의미는 상실되고 말았다. “살고 싶은 무기도 빼앗겨 버”리고 “자살”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젠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라는 진술은 전망 상실의 파국을 말해준다. ‘이젠’이 지칭

15) 신경림 편, 앞의 책, 21~22쪽.

하는 시간성이 현재 이후의 미래라는 점에서 이 시는 추모자의 전망 없는 애도를 보여준다. “나의 병든 데모는 이렇게도/슬프구나.”에서처럼, 추모자는 “병”들었고, 그것이 그를 “슬프”게 한다.

이렇게 추모가능성의 위축은 추모 대상을 향한 애도의 초점을 교란하여 추모자와 추모 대상자에 중첩하여 투사하게 만들었다. 대개의 추모시들이 추모자 스스로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괴감을 토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죽음-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목격한 자로서의 의무감을 추모시는 담고 있다. “해마다 사월이 오면 꽃은 피리라./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은 피리라./젊음이 가꾼 ‘민주’의 꽃이/해마다 해마다 곱게 피리라.”¹⁶⁾처럼 불투명한 전망을 노래하거나, “크나큰 슬픔의 날 기쁨의 날 별빛 해방의 날 오리라/바로 너는 오리라 꽃수레 타고/가랑잎만 굴러도 나는 너를 기다렸다/다리밑 움막 열고 나와 나는 너를 기다렸다.”¹⁷⁾처럼 메시아적 귀환을 환영(幻影)하는 방식으로 죽음-사건을 애도한다.

2) 5·18 추모시의 경우

419 추모시와 마찬가지로 518 추모시도 죽음-사건으로부터 유예된 추모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518의 죽음-사건이 철저히 함구된 상태로 침묵을 강요했다는 외적 사실을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518의 죽음-사건은 419의 죽음-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에서 유예된 추모행위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죽음-사건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능한 층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다. 상상을 초월한 죽음-사건은 그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수용해가는 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위력적인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역사적 진공상태

16) 김용호, 「해마다 4월이 오면: 모든 영광은 젊은이들에게」, 신경림 편, 앞의 책, 304쪽. 이 시는 <조선일보> 1960년 4월 28일 석간에 실렸다.

17) 이시영, 「아, 4월」, 신경림 편, 앞의 책, 47쪽. 이 시는 <영대신문> 1977년 5월 11일자에 발표되었다.

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419와 달리 518의 추모시는 죽음-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체험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518의 추모시들은 죽음-사건에 대한 간접 진술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분수여
도청 앞 우리들의 젊은 광장에서
끓어오르는 분수여
애절한 희생자들
그들이 가고 없는 빈 골짜기의 발자국을 쓸며
새롭게 우리들 마음의 귀를 울려라
천 갈래 만 갈래 솟구치는
오늘 아침 너의 침묵은 우렁차고
너의 침묵은 우레소리와 같구나

[중략]

깨어나라 분수처럼
일어나라 우리들의
젊은 혼이여,

웃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젊은 손길 맞잡으며
나아가라, 이 젊은
아침 광장의 분수처럼
—송수권, 「젊은 광장에서」 부분¹⁸⁾

간접화된 추모의 방식은 시적 상황을 다분히 관념적으로 설정하게 한다. 관념성은 구체적 경험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의 현

18)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엮음, 『5월문학총서1: 시』, 5·18기념재단, 2012, 24~27쪽. 대부분의 5·18 추모시들이 죽음-사건과의 시간적 간극이 큰 상태에서 창작되고 발표되었지만, 이 시는 1980년 6월 4일자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에 발표되어 죽음-사건에 대한 동시간적 추모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다.

재성이 충분히 내면화된 경우에 발생한다. 앞의 경우를 피상적 관념성이라고 한다면 뒤의 경우는 보편적 관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518 추모시는 피상적으로 형상화된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나아가라” 등의 진술들이 지시하는 바가 그렇다. 그것은 “분수”의 역동성을 배경에 거느린 채 “젊은 혼”의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젊은 혼”은 419 추모시에서 볼 수 있는 ‘정의’, ‘자유’에 비하면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정의’나 ‘자유’가 인류보편의 관념인데 비해 ‘젊은 혼’은 추모자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518 추모시들이 죽음-사건의 간접 경험에 따른 피상적 애도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슬픔’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4·19와 마찬가지로 518은 부당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죽음-사건이다. 그러나 518은 419와 다르게 사건 발생 이후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다. 419의 죽음-사건은 즉각적으로 부정한 세력의 몰락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분명 ‘사건적’이었다.¹⁹⁾ 그러나 518은 사건화 되기 이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만 것이다. “죽어간 형제들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드디어 우리는 일어섰다.”²⁰⁾, “나 여기 있어요, 생매장당한 채/우리 여기 있어요, 때죽음당한 채/함부로 타협하지 마세요, 그들과는 절대로”²¹⁾,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보아다오, 대검에 찢린 아이 뺨 어머니의 배를/보아다오, 학살된 아이들의 처량한 눈동자를.”²²⁾ 등 518 추모시는 ‘죽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518이라는 죽음-사건에 대한 간접 경험의 한계로 보인다. 그렇다보니 ‘죽음’에 매몰되어 그것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형상화하

19) 물론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더욱 암울한 군부독재시대로 접어들긴 했지만, 4·19항쟁은 이승만 일파의 부정세력을 축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의나 자유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념적 지향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0) 양성우, 「하늘에 들리도록」, 문병란, 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105쪽.

21) 고규태, 「무명전사의 뉘」, 고은 외,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 1990, 143쪽.

22) 김남주, 「학살」, 위의 책, 78쪽.

기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518 추모시는 죽음-사건에 대한 애도의 방식으로 ‘죽음’ 그 자체의 부당성을 특별히 강조하는 방식을 띠게 된 것이다.

4. 애도의 공적 윤리: 이천 년대의 추모시

앞서 2000년 이전의 추모시들이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죽음-사건을 사적 차원의 순수한 애도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419와 518 추모시들은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발생한 죽음-사건을 추모하면서 그것을 동시대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사적인 차원에서 유예된 애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의 죽음-사건을 대하는 추모의 방식은 직접적이면서 동시대적인 애도가 강화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죽음-사건이 동시대적 애도가 강화된 것은 죽음-사건의 전파력과 그에 따른 추모분위기의 형성 등이 강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추모자가 ‘죽음’을 ‘사건화’ 하는 독특한 윤리 감각이 작용하고 있다. 사건화 된 윤리 감각은 추모자와 추모 대상 간의 심정적 연대 감각과 다르지 않다. 그것은 일종의 공감 감각이다. 2000년 이전의 추모시가 죽음-사건에 대한 공감보다는 그 사건에 자신을 투사하는 애도를 표방하고 있다면, 2000년대 이후의 공감적 추모시는 그 애도 방식이 다르다. 그것은 죽음-사건 혹은 추모 대상과 추모자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감각으로, 일체감 혹은 감정이 이입한 애도인 것이다. 이러한 추모시에서 이입의 애도가 가능한 것은 파국적인 죽음-사건을 감당하기 위한 문학의 윤리적 문제가 과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윤리와 관련하여 이경재는 세월호 참사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상적 과제를 이렇게 제시했다. 첫째, 범죄적 비극을 낳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파헤치는 시각과 둘째, 그 파국적 참사를 낳은 근본적인 불감과 불통에 대한 심화된 의문 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휴머니즘적 시각이다.²³⁾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문학의 윤리는 현실 사회 조건의 '모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순성에 대한 접근과 해석 그리고 풀이 방식이 문학적 윤리의 중요한 핵심 양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사건에 대한 애도 또한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현실 사회의 모순성을 얼마나 긴밀하게 포착해내고 풀어내느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1)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사건은 '죽음'이라는 실체적 의미보다 '사건'으로서의 상징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것은 구체적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시대의 죽음 내지 이념의 죽음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추모자들은 그의 죽음을 시대/이념의 죽음으로 수용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사건은 권력의 부당한 폭력에 의한 억울함을 전면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죽음-사건은 '희생'이라는 상징적 표상으로 대리된 것이다. 특히 자살의 형식으로 주어졌던 죽음-사건이라는 특수성은 그것을 슬퍼하는 애도의 소극적 적용에 머무르지 않고 분노와 복수 등을 불러오는 적극적 애도 표명으로 확산시켰다. 애도가 "애착했던 대상의 상실에 따르는 고통과 이에 따르는 병리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한 자아 노력의 상황"²⁴⁾이라는 점에서 추모자들 스스로 그의 죽음-사건을 병적인 멜랑콜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방편이 '희생'의 발견이었던 셈이다. 그럼으로써 희생을 발생시킨 공동의 적을 소환할 수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사건은 그 '죽음'의 애도를 넘어 억울한 '희생'을 야기한 세력을 향한 분노로 그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

23) 이경재, 앞의 책, 46쪽.

24)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강과 현대정신분석』 15호, 2013, 127쪽.

아, 당신의 몸에는 날카로운 창이 박혀 있어
저들의 창날이 수도 없이 박혀 있어
얼마나 홀로 아팠을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
표적이 되어, 표적이 되어,
우리 서민들을 품에 안은 표적이 되어
피흘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던 사랑

지금 누가 방패 뒤에서 웃고 있는가
너무 두려운 정의와 양심과 진보를
두 번 세 번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지금 누가 웃다 놀라 떨고 있는가

지금 누가 무너지듯 울고 있는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사셨는데”
“당신이 지키려 한 우리는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누가 슬픔과 분노로 하나가 되고 있는가
—박노해, 「우리는 ‘바보’와 사랑을 했네」 부분²⁵⁾

인용시에서 부조(浮彫)되는 이미지는 ‘희생’과 ‘분노’이다. “피흘리고 쓰러지고 비틀거리던 사랑”을 통해 그의 죽음-사건은 ‘희생’의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희생의 이데올로기는 그 반대쪽에 가해자를 상정하게 되는데, 이 시에서 가해자는 “방패 뒤에서 웃고 있는” 자이고 그들은 “정의와 양심과 진보를/두 번 세 번 죽이는데 성공했다고” 웃고 있는 자들이다. 시인은 그와 같은 가해의 폭력과 희생의 현실을 두고 “슬픔과 분노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한다. 그것은 죽음-사건을 향해 슬픔을 표명하는 일반적 애도의 방식과 다르다. 그 이유는 “저들의 창날이 수도 없이 박혀 있어/얼마나 홀로 아팠을까/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을까”에서 보듯 ‘희생’의 이데올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사건을 대리하기 때문이며, 슬픔에 앞서 분노가 애도의 전면에서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5) 정희성 외,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 화남, 2009, 57~58쪽.

그러나 추모사에서 분노는 희생된 죽음-사건의 범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분노가 죽음-사건을 넘어 외부로 향한 행동으로 전개되는 것은 추모시 영역을 벗어난다. 분노가 시의 외부로 지향하게 될 때 시는 현실 사회 조건을 극복해나가는 투쟁과 선동의 도구가 되기 쉽다. 추모시가 죽음-사건을 시의 내부로 환원하는 것은 죽음-사건을 통한 현실 사회 조건의 투쟁보다는 죽음의 희생자와 정서적, 심리적인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분노의 외적 발화를 통해 추모자 스스로 희생자와 격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함으로써 추모자 스스로 죽음-사건 속으로 몰입해가고자 하는 것이 추모시의 한 특징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그대는 애써 찾아 들어갔다/그 길은 험하고 아프고 외로웠으나/그대는 흔들림 없이/치열하게/그 길을 뚫고 나아갔다/그리고 마침내 그대는 그 길이 옳았음을/세상에 알렸다/그대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아아 그대는 죽음까지도/이토록 순결하구나!/아깝고 분하고 비통하다

—이성부, 「어둡다」 전문²⁶⁾

치열하게 살았으나/욕되게 살 수는 없어/벼랑 끝에 한 생애를 던진 저 한 점 꽃잎의 영혼을/하늘이어, 당신의 두 팔로 안아주소서

—도종환, 「벼랑에 지는 꽃」 부분²⁷⁾

당신의 죽음이 모여/당신의 사랑이 모여//인간의 현실은/인간의 역사는//한 걸음씩 한 걸음씩/이주 쪼끔씩/앞으로 나아가겠지요//좀더 나은 세상을 향해!/자유롭고, 평등하고,/서로 공경하는 세상을 향해!

—이은봉, 「앞드려 절할 수밖에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부분²⁸⁾

인용한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희생’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죽음-사건은

26) 위의 책, 30쪽.

27) 위의 책, 45쪽.

28) 위의 책, 224~225쪽.

희생자의 고통을 추모자의 고통으로 전이하는 방식을 띠며, 희생자와 추모자가 동일시된 상황에서 추모자 스스로 희생자의 삶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정향하는 것을 애도의 특징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추모 대상에 추모자의 감정을 투사하는 ‘이입’의 애도를 통해 억울한 ‘희생’을 해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애도는 죽음-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사건으로 전환해나가는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애도를 통해 ‘죽음’을 ‘-죽음’으로, ‘-삶’을 ‘삶’으로 전환해나갈 수 있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추모시가 공적 윤리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희생’ 자체가 타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추모자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유’, ‘민주’, ‘정의’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의 죽음으로 연계되면서, 그것이 추모자들의 현실 사회적 조건의 희생에 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죽음을 곧 ‘나’의 죽음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와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극단의 추모이자 애도의 형식이 된다.²⁹⁾

2) 세월호 희생자 추모시의 경우

지그문트 바우만이 “우리는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공평하고 무작위적이고 생각하곤 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가난은 위험하다.”³⁰⁾고 말했을 때,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험’에 관해 ‘공평함’은

29) 자살과 관련하여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과 동일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베르테르 효과’야말로 가장 극단의 추모 방식일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와 같은 모방 자살은 실패한 애도로 인한 멜랑콜리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멜랑콜리란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꼈 줄 아는 자애심이 사라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며, 망상적인 자기비하와 아울러 본능적인 욕구까지 누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서유석, 앞의 글, 127쪽)는 점에서 애도와 흔히 ‘우울증’으로 번역되는 멜랑콜리는 ‘슬픔’에 대한 각성의 차이에서 분화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슬픔을 야기하는 원인과 그것의 의의 등에 대한 합리적, 이성적 성찰이 동반되는 경우에 한해 애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연재해’가 불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은 재해를 수습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가난’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재해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이다.

바우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경제적 가난이 자본의 소외현상이라고 한다면,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국가 자본주의의 보호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편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현상이 ‘가난’하기 때문에 국가의 구조로부터 외면당한 불공평함인 이유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첨단 자본주의와 함께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는 자본 활동에 큰 ‘자유’를 부여하면서 개인이 당하는 재난과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 등에서 국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의 영리화’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난 피해의 계급화’를 양산하였다.³¹⁾ 그럼으로써 ‘가난’이 ‘위험’과 동의어에 가깝게 공존하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의 다수 희생자인 청소년들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과 위험이 동의어에 가깝게 간주된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재해(세월호 침몰) 당시 이들에게 주어진 “가만히 있으라”는 전언은 위험을 대하는 권력의 속성³²⁾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세월호 추모시는 희생자 개인에 대한 애도에 국한되지

30)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15쪽.

31) 김동춘, 「국가 부채와 감정정치」,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팽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161쪽.

32) 세월호 침몰 당시 방송된 ‘가만히 있으라’는 전언은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선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행사 방식과 다르지 않다. 이는 권력이 권력을 지니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재해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으며, 권력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가만히 있으라’는 전언이 승객들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라는 점에서, 재해 상황에서 권력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안전이 아니라 권력 스스로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않는다.

돌려 말하자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떨어냈다
사회 전체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떨어내고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주입했다
그렇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노동자 세월호에 태워진 이들이 900만 명이다
사회의 모든 곳에서
'안전'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어야 할 곳들을 떨어내고
그곳에 '무한 이윤'이라는 탐욕을 채워 넣었다
[……]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의 이동은 언제나 자유로운 합법이었고
위험은 아래로 아래로만 전가되었다
그런 자본의 무한한 축적을 위해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난바다 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송경동,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부분³³⁾

이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그러한 재해를 수습해야 할 권력을 향한 분노로 전환되고 있다. 추모자는 자신은 물론 애도의 대상인 희생자가 속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추모의 목표를 확장한다. 이는 죽음-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일회적 문제가 아니

33) 고은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화사, 2014, 89~91쪽.

라 구조적이고 영속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죽음-사건은 “자본과 권력”을 가해자로 “노동자”를 희생자로 등치시키면서 ‘안전’이 ‘위험’을 담보로 ‘이윤’으로 대치되는 삶의 ‘불안정성’을 부각시킨다. 그리하여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시는 “사람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나라”³⁴⁾에서 “만족을 모르는 자본과 가식에 찌든 권력”³⁵⁾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몇 만 원짜리 승객이나 짐짝에 불과”³⁶⁾한 것으로 간주하고 마는 구조적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죽음-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목격)하는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삶의 윤리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형성된 삶의 공동체는 2000년대에 발생한 죽음-사건을 애도하는 일관된 모습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사건이 ‘정의’, ‘자유’ 등 정치적 공동체 윤리를 중심으로 애도가 진행되었다면, 세월호의 경우에는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어 공정성을 상실해버린 (국가) 권력을 향한 분노와 각성의 추모가 두드러진다. 이때 애도의 주체로 형성된 공동체는 ‘노란 리본’이라는 상징으로 구체화되는데, “뿌리부터 가지까지 몽땅 썩어 문드러진/국가”³⁷⁾의 대책점에 “노란 리본이 물들인 세상”³⁸⁾을 상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애도한다. 이러한 애도의 방식은 죽음-사건의 비극적 주체인 희생자와 그 사건의 목격자인 추모자가 개별적 존재이지만, ‘위험’에 노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다를 바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동체로서의 윤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월호 추모시의 경우, 추모자 스스로 잠재적 추모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구에 추모자들도 죽음-사건의 비극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의식이 애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34) 공광규, 「노란 리본을 묶으며」, 위의 책, 28쪽.

35) 김선우,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의 책, 44쪽.

36) 나희덕, 「난파된 교실」, 위의 책, 66쪽.

37) 유용주, 「국가를 구속하라」, 위의 책, 114쪽.

38) 안상학, 「엄마 아빠 노란 리본을 달고 계세요」, 위의 책, 104쪽.

5. 나오며

이천 년대 이후 사회역사적 죽음-사건을 대하는 방식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이 추모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는 물론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미선·효순) 압사 사건을 비롯,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2009년 용산참사, 2015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추모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면서 추모에 따른 애도의 방식도 ‘슬픔’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분노’, ‘각성’ 등 애도는 내적 행위에서 외화된 발화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 관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추모 과정은 그 사건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윤리를 향해 나아가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추모는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지향하는 행위’로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 추모에 따른 애도의 방식도 경건함, 엄숙함, 비통함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함 등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위험’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 간의 연대와 공동체 윤리를 견고히 조직하는 쪽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죽음-사건에 대한 사적 추모로서의 애도가 공적 영역으로 수용되었고, 죽음-사건의 비극적 주체와 그것의 목격자로서의 추모자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가 죽음-사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비극적 전망을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의 이면에서 권력, 자본, 이윤 등이 위험을 담보로 벌이는 사회역사적 구조의 모순을 확인하였다. 우리 모두는 ‘가난’하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죽음-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자본) 권력은 오히려 위험을 부추기거나 ‘가난’과 거리를 둬으로써 죽음-사건을 미필적 고의로 위장해낸다.

이천 년을 전후하여 추모시의 애도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은 죽음-사건을 대하는 관점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419나 518 희생자에 대한 애도는 그

들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진혼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죽음을 슬퍼하고, 슬퍼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회한을 삭이며 그대로 죽음을 덮는 방식이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나 세월호 희생자를 향한 추모사에서 보듯 이천 년대 이후의 애도는 ‘죽음’보다는 ‘삶’에 초점을 맞춘다. 함께 살아가야 할 바람직한 공동체 윤리를 지향함으로써 살아남은 추모자들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 이는 발생 가능한 죽음-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식의 애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천 년대 추모시가 죽음-사건을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발생할’ 사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도는 ‘발생한 죽음’이 아니라 ‘발생할 죽음’, 즉 다가오는 삶을 구축하고자 하는 공동체 윤리의 발화로 읽어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엮음, 『5월문학총서1: 시』, 518기념재단, 2012.
고은 외, 『하늘이여 땅이여 아아, 광주여』, 황토, 1990.
고은 외,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실천문학사, 2014.
문병란이영진 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인동, 1987.
신경림 편, 『4월혁명기념시전집』, 학민사, 1983.

2. 논문 및 단행본

- 김 석, 「야만의 시대 애도의 필요성」, 『시작』, 2014년 가을호.
김수영, 『김수영전집: 시』, 민음사, 1981.
브루스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10.
서유석, 「'김인향전'에 나타나는 애도작업(Travail du deuil)의 두 가지 방향: 애도 부재로 인한 자살과 해원을 통한 재생의 새로운 의미」,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5호, 한국라캉과현대정신분석학회, 2013.
이경재, 『문학과 애도』, 소명출판, 2016.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 그린비, 2012.
인문학협동조합 기획,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2015.
정희성 외, 『고마워요 미안해요 일어나요』, 화남, 2009.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옮김,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무의식에 관하여』, 열린책들, 1997.

【Abstracts】

Poetic Strategies of Mourning in Memorial Poems

Moon Shin

This article explores the mourning of memorial poe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aspect of literary mourning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death-events before and after the twentie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death of the 4·19 Revolution, the death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the sinking of Sewol.

The memorial poems of the 4·19 and 5·18 maintains the objective distance from death through private mourning. In this process, the memorial poems emphasize the death-event of the memorial object and reveals the mourning by expressing the injustice of the death-event strongly. This is because these deaths were regarded as direct sacrifices by violent politics. In other words, such memorial poems strengthen the sense of confrontation with unjust political power through mourning.

The memorial poems of the twentieth century show the convergence of the emotions that the memorialists sympathize with the memorial object in the public mourning. These deaths seem to have led to empathic mourning of the memorialists in that they were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unjust power but occurred in tacit consent and acquiescence. On the back of these, the memorialists are also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y are potential victims. For this reason, mourning at the memorial poems of

the twentieth century are being expressed in a way that wants to change the political and social topography.

key-word: Memorial poems, Mourning, Sacrifice, Death-events, Ethics of mourning

이 논문은 2017년 9월 2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10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10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